

2017학년도 수시모집 인문·사회계열 논술고사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과: 문학, 화법과 작문, 문학, 고전 사회과: 사회, 한국사, 세계지리, 비교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장소, 여행, 낯설
예상 소요 시간	60분 /전체 120분	

문항 및 자료

※다음 제시문을 읽고 답하십시오.

【문제 1】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 (다), (라)의 여행자가 밀줄 친 장소에서 느낀 낯설의 이유들을 논하고, 여행에서 얻은 것들을 설명하십시오.(800±100자) (문과대학, 사범대학 및 예술학과 지원자에게는 타 문제의 2배의 배점)

(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은 낯선 것을 접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인간이 공간을 이동하는 행위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 집과 고향이라는 좁고 익숙한 영역과 이곳을 떠난 인간이 진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바깥의 넓고 낯선 영역, 이 두 영역으로의 분할은 체험공간 전체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분할이다. 일반적으로 낯선 것은 아는 것, 익숙한 것, 내 것의 반대이다. 낯선 것은 종종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기도 한다.

인간이 익숙한 세계에서 낯선 환경으로 내던져지면, 주변 사람들과 사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당연하고 익숙한 느낌은 사라진다. 그는 이해할 수 있는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간다. 이 세계에서 인간은 불안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배제된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낯선 곳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일 필요는 없다. 낯선 곳은 인간을 에워싼 가장 가까운 영역까지 침투해 그를 압도하는 힘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집에 낯선 사람이나 낯선 세력이 침입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삶도 우리에게 낯설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직업상 부득이한 일이 있거나 낯선 땅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할 때 자신

해서 낯선 곳에 가기도 한다. 여하튼 낯선 곳은 일시적인 체류지이기 때문에 인간은 목적을 달성하면 그곳을 떠나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해서 원래 낯익은 것과 낯선 곳에서 배운 것 사이에 생산적인 대화가 일어난다.

(나)

7월 초 8일, 맑다.

나는 사신 박명원과 같은 가마를 타고 삼류하를 건너 냉정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십여 리 남짓 가다가 산기슭 하나를 돌아 나가니 하인 태복이 허리를 굽히고 말 앞으로 달려와 땅에 엎드리고 큰 소리로 말한다.

“백탑(白塔)*이 나타났음을 아뢰오.”

아직 산기슭이 가로막고 있어 백탑은 보이지 않았다. 말을 급히 몰아 수십 보를 채 못가서 겨우 산기슭을 벗어났는데, 눈앞이 어질어질하더니 갑자기 헛것이 오르락내리락한다. 오늘 나는 알았다. 사람이란 본래 붙어 의지할 곳 없이 단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이리 저리 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말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좋은 울음터로다. 한바탕 울어 볼 만하구나!”라고 했다. 그러자 정 진사가 “천지간에 이렇게 시야가 특 트인 곳을 만나서는 별안간 통곡할 것을 생각하시니 무슨 까닭이요?”라고 묻기에 나는 말했다.

“사람들은 슬픈 감정만이 울음을 자아내는 줄 알지만, 이는 지극한 감정을 겪어보지 못한 채 슬픔에만 울음을 짜 맞춘 것이네. 기쁨, 노여움,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도 극에 달하면 울게 되니, 답답한 감정들을 확 풀어 버리려고 할 때 소리쳐 우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은 없네. (중략) 갓난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부대끼다가 갑자기 넓은 곳으로 빠져나와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되니, 어찌 참소리를 질러 억눌렀던 감정을 다 크게 씻어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거짓과 조작이 없는 갓난아이의 참소리를 마땅히 본받는다면, 금강산의 비로봉에 올라 동해를 바라보는 것이 한바탕 울 자리를 만들 것이요, 황해도 장연의 금사산에 가는 것도 한바탕 울 자리를 만들 것이네. 지금 **요동 벌판**에 이르러 여기부터 산해관(山海關)**까지 일천이백 리가 사방에 도무지 한 점의 산이라고는 없이 하늘 끝과 땅 끝이 아교로 붙인 듯 실로 꿰맨 듯하고 고금(古今)으로 비와 구름만이 아득하니, 이 역시 한바탕 울 자리가 될 것이네.”

* 백탑(白塔) : 표면에 흰 색을 칠한 중국의 불탑

** 산해관(山海關) : 만리장성의 동쪽 끝에 있는 관문

(다)

1790년 봄, 스물일곱 살의 프랑스인 사비에르 드 메스트르는 **자신의 침실**을 여행하고, 나중에 그것을『나의 침실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나는 문을 잠그고 분홍색과 파란색이 섞인 파자마로 갈아입는다. 짐을 챙길 필요도 없이 방에서 가장 큰 가구인 소파를 여행한다. 이 여행을 통해서 평소의 무기력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눈으로 소파를 바라보며 그 특징 몇 가지를 재발견한다. 소파 다리의 우아함에 감탄하며, 그 푹신푹신한 곳에 웅크리고 사랑과 출세를 꿈꾸며 보냈던 즐거운 시간들을 기억해낸다. 이제 나는 소파에서 침대를 훑쳐본다. 이번에도 여행자라는 유리한 입장에서 이 복잡한 가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안에서 보낸 밤들에 고마움을 느끼며, 침대보가 파자마와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것이 깊이 잠들지 못하는 사람에게 차분함과 즐거운 백일몽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드 메스트르의 작품은 심오하고 의미심장한 통찰로부터 출발했다. 우리가 여행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은 여행의 목적지보다는 여행하는 심리에 더 좌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행의 심리를 우리 자신이 사는 곳에 적용할 수 있다면, 이런 곳들도 남아메리카의 높은 산 고개나 나비가 가득한 밀림만큼이나 흥미로운 곳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행하는 심리란 무엇인가? 수용성이 제일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용적인 태도가 되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장소에 다가가게 된다. 어떤 것이 재미있고 어떤 것이 재미없다는 고정관념은 버리고 간다.

(라)

나는 대서양과 적도를 건너서 **열대 부근**에 왔다는 사실을 몇몇 확실한 징표로 알 수 있었다. 이 징표 가운데서 후텁지근한 열기는 내가 보통 때 입고 있던 모직 옷을 벗게 하였고, ‘집 안’과 ‘집 바깥’이라는 구별을 없애버렸다. 옷과 집은 우리가 속한 문명의 징표 가운데 하나였다. 반면에 완전히 인간화해버린 우리네 풍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과 미개척 자연과의 대립이 이곳에는 있음을 나는 곧 알 수 있었다. 이곳에는 도처에 종려나무나 낫선 꽃들이 있으며, 또한 꼭지를 떼어내면 술 냄새가 물씬 나는 달콤하고 시원한 즙을 마실 수 있는 푸른 야자나무 열매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인류학자로서 다른 변화도 느꼈다. 지금까지는 가난하였던 내가 이곳에서는 부자가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나의 물질적 조건이 바뀌었다는 것, 이 지역의 물건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값이 싸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파인애플 한 개에 1프랑, 커다란 바나나 한 꾸러미가 2프랑, 이탈리아인 상점 주인이 꼬챙이에 꿰어 구워준 병아리 구이가 4프랑 밖에 하지 않았다. 마치 프랑스 동요에 나오는 버터 빵 궁전에 온 기분이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여행은 크든지 작든지, 더 좋든지 아니면 더 나쁘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변화를 여행자에게 나타나게 하는 법이다. 여행자는 이 세계에서 기어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여행자가 방문하는 지역의 향기와 느낌은 그가 그 곳에서 차지하게 될 사회적 척도상의 위치와 함께 그의 마음속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출제 의도

- 문제 1은 기행문이나 여행에 관련된 글을 읽고 낯선 장소로의 여행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는 논술 과제이다. 이 문제는 텍스트의 독해를 통해 여행에 대한 일상적인 인식을 심화·확장할 수 있는 분석적, 창의적 사고력을 요구한다.
- 제시문 (나)는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박지원의 『열하일기』 중 “호곡장”의 일부를 발췌하였고, 제시문 (라)는 고전 교과서에 수록된 레바-스트로스의 『슬픈 열대』 중에서 발췌하였다. 이를 통해 고전 텍스트를 독해할 수 있는 소양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이 문제는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 기술 체험을 통한 자문화 및 타문화에 대한 성찰적 이해’와 내용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해결적 글쓰기’와 독해 및 논술의 차원에서 관련되어 있다.